

# 해남군 교육재단 연내 출범

### 이달 중 재단 임원 구성 완료하고 설립허가 신청 매년 30억 출연 2032년 기금 500억 조성 목표

해남교육재단의 연내 출범이 가시화 되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민과 함께 키우고 성장하는 교육도시 해남'을 비전으로 재단법인 교육재단의 임원을 공개 모집하는 등 설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재단 설립은 민선8기 해남군 공약사업으로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하고 함께 지역사랑 인재육성사업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해남교육재단은 해남군이 출연해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기존 교육청과 학교의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사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되는 교육지원 전담 기구이다. 다양한 장학사업 확대, 시대적 변화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사업 지원, 민·관·학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 등 아동·청소년·군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지난 10월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 임원 공개모집과 재단 정관 등을 검토했다.

교육재단 임원은 15명의 이사와 2명으로 감사로 구성되며, 당연직을 제외한 12명의 이사와 감사를 공개 모집했다. 임원 구성과 함께 군은 12월 중순 발기인 대회 및 창립 이사회를 마치고 교육청 등에 교육재단 설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군은 교육재단의 안정적인 기금 조성을 위해 사업비 및 운영비 외에 매년 30억원씩 출연해 2032년에는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군민·향우 참여의 장학사업기금 조성사업도 확대해 기금 적립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교육재단은 지역의 보편적인 교육 현안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미래 우수 인재 육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체계 구축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흑산홍어 위판.

## 흑산 홍어 어디 갔나...어민들 울상

### 어획 부진에 연말 특수도 사라져

신안의 대표 명품 수산물인 흑산홍어 잡이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상악화 등으로 조업 어선이 제대로 출어하지 못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4일 신안수협 흑산지점에 따르면 지난 10월 3척, 12일 4척의 홍어잡이 어선이 열흘만에 1300여 마리를 잡는 데 그쳤다. 지난해에는 같은 척수의 어선이 사흘이면 1000여마리를 거둔다. 흑산수협 관계자는 "본격적인 홍어잡이 철을 맞아 7척의 어선이 출어를 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기상악화로 조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획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어획 부진에 거래마저 시들해 어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흑산홍어 8kg짜리 암컷 최상품은 30만 원대 중반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어획 부진 등을 고려하면 값이 더 올라야 하는데 어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수협은 전했다. 흑산 홍어는 육질이 찰지고 부드러우며 담을 사하는 효능이 뛰어나 기관지 천식, 소화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 삭혀서 먹어도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유일하고도 특별한 생선으로 고단백, 저지방으로 숙취 해소 효과가 있다. 흑산도 인근 해역은 검푸른 물색으로 수심 80m 이상이며 바닥층은 갯벌이 잘 형성돼 국내 홍어 서식지 중 홍어 산란장, 회유장으로는 최적의 장소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골목길 따라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 광주지검 목포지청·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참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지청장 권기대)과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이혁영)가 추운 겨울 연탄으로 생활하는 범죄피해자 가정과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마음과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2022년 골목길 따라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13일 목포시 달성길 일대에서 펼쳤다. <사진> 이날 봉사 활동은 연탄 배달차가 집 앞까지 올라갈 수 없는 가파른 골목길에 살고 있는 7가정에 난방유 및 연탄 등을 목포지청 지청장과 검사, 수사관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혁영 이사장과 센터 위원,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이 직접 릴레이식으로 옮겨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인근 어려운 이웃에게 쌀 (10포)과 라면 (10박스)을 목원동장을 통해 전달했다. 목포지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골목길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연례행사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직접 연탄과 사랑의 선물들을 배달해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 “다시, 새마을운동! 도민과 함께” 전남새마을이 앞장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명운동’·‘깨끗한 전남 만들기’ 나서

“깨끗한 전남 만들기는 단순한 환경정화활동이 아닌 생명을 살리고 전남을 살리는 생명운동입니다.”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정신이나눔·배려·창조의 시대정신을 더해 화합과 번영의 자랑스러운 나라 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전남도새마을회가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환 계획을 세우고 블루이코노미의 실현을 위해 ‘생명운동’과 ‘깨끗한 전남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50만 그루 나무심기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명운동’ 앞장>전남도새마을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선 2023년까지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지난 2021년에 77개소에 1140명이 참여 1만1898그루, 2022년에는 229개소에 4250명이 참여해 18만4952그루의 관목류, 교목류, 과실수 등을 심었다. 전남도새마을회는 또 해양경관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닷가 부유물인 스티로폼·플라스틱과 폐비닐·폐농약병 등 영농 폐기물을 읍면동에서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있다.



이귀남 전남도새마을회회장

전남도새마을회에서는 생활 속 탄소중립 15개 수칙 실천 캠페인으로 폐 폼보드 (우드락) 등을 재활용해 캠페인 피켓을 만들어 분리수거, 장바구니 이용하고 비닐사용 줄이기, 1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하기, 물티슈 털 쓰기, 음식 포장 시 1회용품 줄이기, 인쇄 시 종이 사용 줄이기 등 거리 홍보를 하고 있다. 22개 시군새마을회에서도 폐비닐, 폐농약병·농약봉지, 현웃, 고철 등을 수거해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페트병 재활용을 위해 1700만원 상당의 페트병 파쇄기를 구입해 회원들이 수거한 페트병을 파쇄해 블랙아크에 kg당 500원에 판매, 페트병 재활용과 수익금도 창출해 지역사회 공헌하고 사업에 많은 시군들이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자원재활용운동·생활주변 청결활동 등 ‘깨끗한 전남 만들기’ 전개>전남도새마을회는 ‘깨끗한 전남 만들기’를 위한 생활주변 청결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국새마을지도자가 5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펼치고 있는 대표 운동이 바로 새마을대청소다. 전남도새마을회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분기별 1회 주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전남 만들기’ 청결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급 단체 (새마을, 행정기관, 유관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매 분기 첫 주주 금요일을 ‘깨끗한 전남 만들기’의 날’로 정해 읍면동 회장 책임하에 읍면동사무소와 연계해 해양·영농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캠페인과 농·어업인, 관광객,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계도 캠페인과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민·관이 함께하는 청소체계를 구축해 청소가 어려운 해안가 마을 내 지역은 읍면동 새마을단체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정화활동과 바닷가 주변 불법 소각 및 불법 투기 단속과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특정 시기에 맞춤형으로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봄에는 겨울 내내 축적된 영농·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주요 농지 및 산, 들, 강, 바다 (해안가, 해수욕장)에 방치된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하고, 여름 휴가철에는 주요 관광지 및 계곡, 해수욕장에 환경안내소를 설치해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이귀남 전남도새마을회장은 “전남새마을회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그린에너지와 녹색교통·생명경제, 국토저탄소화·탄소중립식생활 3개 분야 15가지 수칙을 정했다”며 “우리 생활에서부터 에너지절약, 소비절약, 대중교통 이용하기, 1회용품 줄이기, 탄소흡수원 식재 등 온실가스 줄이기를 생활화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전남도새마을회가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환 계획을 세우고 블루이코노미의 실현을 위해 ‘생명운동’과 ‘깨끗한 전남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생명운동 일환으로 시행한 새마을 생명동산 조성사업(왼쪽)과 깨끗한 전남 만들기 사업 중 스티로폼 등 해양쓰레기 수거작업. <전남도새마을회 제공>



## 완도 호랑가시나무 길, 산림청 ‘모범 도시 숲’ 인증

완도군의 ‘완도호랑가시나무 길’ <사진>이 산림청 주관 ‘모범 도시 숲’ 인증을 획득했다. 모범 도시 숲 인증은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 도시 기후 문제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도시 숲 조성에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지역과 사업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완도군은 지난 9월 도시 숲의 규모·적합성·안전성 등 운영 관리 평가인 서류 심사 후 조정 관련 기술인, 도시 숲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터 현장 심사를 받았다. 평가단에서는 지역 고유 수종의 활용 및 홍보,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한 군의 세심한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군은 전했다. 완도호랑가시나무는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 호랑가시나무와 감탕나무의 자연 교잡종이다.

완도에서 처음 발견돼 완도의 지명이 붙었으며, 겨우내 짙은 녹색 잎과 빨간 열매는 관광 가치가 높다. 군은 국도 77호선 일원, 군 초입 도로 2km 구간 (장보고마트-염목교차로) 중앙 분리대에 완도호랑가시나무를 심어 ‘완도호랑가시나무 길’을 조성하고 나무 사이에 계절마다 꽃 화분을 교체해 다채로운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탄소 흡수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제3회 정원 페스티벌 유치 성공과 함께 모범 도시 숲 인증



까지 받아 도시 정원의 우수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현대화’ 해남 매일시장 이달중 재개장

### 사업 마무리 수순...입점상인 친절·위생 교육 실시

해남군 유일 상설시장인 해남 매일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이달중 재개장한다. 해남 매일시장은 11월까지 기존 내부 건축공사가 마무리됐으며, 조만간 막구조 시공을 완료할 예정이다. 상인들은 16일까지 입점을 마치고 17일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시장 재개장 기념 행사로 버스킹공연, 플라마켓, 장보기 이벤트 등을 집중 실시해 연말연시 시장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 입점 예정 상인 67명을 대상으로 친절·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매일시장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서비스 향상 교육도 마려하고 있다. 친절교육에서는 ‘친절과 위생서비스가 확 바뀌

어야 이긴다!’를 주제로 상인들은 매일시장이 새롭게 단장된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친절과 위생으로 서비스해 나가자며 뜻을 모았다. 해남군은 앞으로도 상인들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매일시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해남 매일시장 시설행태와 사업은 2015년부터 약 185억원을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노후화된 시장을 재건하는 사업이다. 시장 조성이 완료되면 여는 대형마트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목포 지역화폐, 모바일 서비스 시, 내년 2월부터

목포사랑상품권이 내년 2월부터 모바일을 통해 구매·결제할 수 있게 된다. 목포시는 간편결제 시스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발행 중인 지류형·카드형 상품권에 모바일 (QR결제형) 상품권을 추가해 결제 방식을 다양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모바일 상품권 시행으로 목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앱에서 상품권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 가맹점인 소상공인들은 결제 수수료가 없어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매한도는 개인당 월 30만 원으로 6%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으며 발행 규모는 연간 150억 원이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